

일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백명화¹, 이미숙^{2*}, 김지연³

¹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교수, ²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³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부 조교수

Relationships between Integr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in Nursing Students

Myung-Wha Baek¹, Mi-Suk Lee^{2*}, Ji-Youn Kim³

¹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Jinju,

²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Koje University, Geoje,

³Assistant Professor, Department of Nursing, Jinju Health College, Jinju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여 학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에 있다. 자료 수집은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 진행하였다. 임상실습 경험이 1회 이상인 간호대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학과만족도 척도로 이루어진 설문지로 자료를 수집하였고, 총 394부의 자료를 SPSS 프로그램으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통합성은 학과만족도에 정적 상관관계($r=.412, p<.01$),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193, p<.01$).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통합성($\beta=.406, p<.001$)과 입학 동기($\beta=.166, p=.006$)로 전체 변량을 20% 설명하였다. 결과적으로 통합성과 입학 동기는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간호대학생들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초기부터 통합성 증진프로그램과 학과적응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간호대학생,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학과만족도, 입학동기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integration and clinical practice stress of nursing students an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with department satisfaction. Data collection was from June to July 2021. Data were collected through questionnaires consisting of scales of integr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departmental satisfaction, targeting 3rd and 4th grade nursing students who have had more than on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 A total of 394 copies were analyzed using the SPSS program to analyze the data. As a result of the study, integration showed a positive correlation with department satisfaction ($r=.412, p<.01$) and a negative correlation with clinical practice stress ($r=-.193, p<.01$). The predictive factors affecting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were integration ($\beta=.406, p<.001$) and admission motivation ($\beta=.166, p=.006$), which accounted for 20% of the total variance. Integration Performance It was confirmed that the motivation for entering the nursing department affects department satisfaction. In order to increase the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it is thought that it is necessary to operate an integration promotion program and department adaptation program from the early stage of admission.

Key Words : Students, nursing, integr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motivation for admission

*Corresponding Author : Mi-Suk Lee(pr21053@koje.ac.kr)

Received November 10, 2021

Accepted February 20, 2022

Revised December 1, 2021

Published February 28, 2022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 대학생들 대부분은 입학한 후 전공지식과 실무를 함양하며 직업인으로서의 소양과 자질을 갖추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1]. 하지만 상당수의 학생들은 개인의 적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대학에 입학하게 되고 그 결과 자신의 전공과 적성 간의 불일치 등의 이유로 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2]. 특히 간호대학생은 타과에 비해 전문지식습득의 어려움, 교우관계, 시험, 취업 등 여러 스트레스 요인에 노출되어 있으며, 더불어 국가시험과 임상실습에서 오는 과중한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3].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 학생들은 학과 만족이 감소할 수 있으며, 간호학과에 대한 부정적은 전문직 간호사로서의 자질 함양과 향후 취업과 진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요인을 파악하는 연구는 필요하다.

최근 한국간호평가원은 프로그램 학습 성과 기반의 교육과정 구축과 현장실무능력 강화를 위한 간호교육에서의 임상실습 교육의 중요성과 비중을 강조하고 있어, 이로 인한 임상실습에 대한 간호대학생의 부담은 계속 가중되고 있다. 간호교육의 근본적인 목표는 전인 간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직 간호사를 양성하는 것이다[4]. 이러한 교육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간호학과에서는 신입생 때부터 체계적으로 교양 및 전공지식을 함양하도록 하고 있으며[5], 이론적인 지식을 실질적인 실무와 접목하는 단계인 임상실습 교육과정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임상실습 교육은 간호대 학생이 다양한 간호현장에서 그동안 습득한 간호의 기본 지식과 기술, 인성 측면인 가치관, 태도 등을 함양하고 훈련하는 간호 교육과정의 필수 부분이다[6, 7]. 하지만 최근 간호교육기관은 간호학과 신설과 간호학생의 수적인 팽창으로 인해 우수한 실습기관을 확보하기가 어렵고, 간호대 학생은 간호대상자들의 심한 거부감과 수준 높은 전인 간호에 대한 요구로 관찰 위주의 제한된 실습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4]. 이것은 임상실습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연결되어 그 효율성은 저하되고 다른 어떤 상황에서 보다 심각한 불안감과 긴장감을 느끼게 하여 학과 적응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8], 임상실습스트레스와 학과만족도는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며, 임상실습스트레스가 많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 그러므로 임

상실습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서, 미래 간호 전문직의 실무능력 함양을 위해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반드시 중재되어야 한다.

한편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움을 겪을 시 스트레스의 영향을 조절하거나 적응하는 개인적 능력에 대한 관심 역시 증가하고 있다. 당면한 스트레스에 저항할 수 있는 일부 개인의 특징적인 성향 또는 인지적 요소에 대하여 다양한 개념이론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 하나가 건강생성이론에 따른 통합성이다[10].

통합성은 모든 사회·문화적 배경 하에서 스트레스에 성공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개인적 요소이며, 인지적 요소인 이해력(comprehensibility), 스트레스에 대처하는 행동적 요소인 처리능력(manageability)과 동기부여 요소인 의미부여성(meaningfulness)의 3개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11]. 기존의 스트레스 대처 이론보다 더 기본적인 개인적 성향에 기반을 둔 개념이다. 스트레스원에 대해 개인이 보유한 내적자원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조절하는 개인적 능력이며, 질병과 건강의 연속선상에서 대처 능력의 결정인자이다[12].

그러므로 간호대 학생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이를 대처할 수 있는 개인적 성향이나 인지적 요인을 가졌다면 전공학과에 잘 적응하여 결국 학과 만족 감소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대 학생들의 통합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것은 간호교육의 중요한 핵심이다.

현재까지 간호학과 학생들의 학과만족도에 대한 선행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대인관계, 자기 효능감, 학과만족도 비교연구[13], 간호학과 성인대학생의 전공선택 동기, 전공만족도가 학과 적응에 미치는 효과연구[14], 간호대학생의 비판적 사고성향, 극복력과 학과 만족도와의 관련성 연구[15], 간호대학생의 기본심리교육, 자아 존중감, 학과만족도, 가족건강성이 진로태도성숙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16]등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간호학과 학생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통합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 수준을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생지도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1.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통합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구체적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통합성과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를 파악한다.
- 2)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의 차이를 파악한다.
- 3) 대상자의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 간 상관관계를 파악한다.
- 4) 대상자의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간호대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학과만족도와와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7월까지였으며, J시에 소재한 J대학교 간호학과 3, 4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들로 임상실습 경험이 1회 이상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 표출하였다. G power 3.1.2 program을 이용하여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에 필요한 효과크기 .05, 검정력 .95(1-β), 유의수준 .05와 15개의 투입 독립변수를 고려하여 산출한 결과 총 314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나 탈락률을 고려하여 395명을 설문 대상으로 하였으며 불성실 응답 1부를 제외하고 394명을 최종 분석하였다.

2.3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자료 수집에 앞서 진주 보건의료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JRB-A21-06)을 받았으며, 승인 내용에 근거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취지, 자료의 비밀과 익명성, 설문지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거부권리 등을 설명하고 자발적으로 서면 동의한 대상자에게 설문지를 배부하여 작성하게 한 후 그 자리에서 회수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연구목적으로만 사용할 것

이며 연구가 종료 후 잠금장치가 있는 곳에 3년간 보관한 뒤 자료를 폐기할 것이다.

2.4 연구도구

2.4.1 통합성

통합성을 측정하기 위해 Antronovsky[10]가 개발한 도구를 Seo[17]가 번안,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9문항이며 이해가능성 11문항, 처리가능성 10문항, 의미부여성 8문항으로 3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적으로 부정' 1점에서 '전적으로 긍정' 7점까지의 7점 척도이며, 총 29문항 중 12문항은 점수를 역으로 환산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통합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Antonovsky[10]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0.82\sim0.95$ 였고, Seo[17]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86$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다.

2.4.2 임상실습 스트레스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해 Whang[18]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58문항이며 상황특성 32문항, 개인특성 17문항, 외부적 조정요인 9문항으로 3개의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느끼지 않는다' 1점에서 '아주 심하게 느낀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Whang[18]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4$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7$ 이었다.

2.4.3 학과만족도

학과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Illinois 대학에서 개발된 학과평가 조사지(Program Evaluation Survey)[19]를 기초로 Kim 등[20]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총 27문항이며 전공의 교과내용 및 운영 5문항, 교수-학생간의 관계와 의사소통 3문항, 전공 관심 7문항, 학과의 사회적 인식 5문항, 학교의 사회적 인식 7문항으로 5개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Kim 등[20]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92$ 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Cronbach's $\alpha = .93$ 이었다.

2.5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ver.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기술통계를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로 분석하였다.
- 2) 대상자의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학과만족 정도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 3) 대상자의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Scheffe test로 사후 검정하였다.
- 4) 대상자의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및 학과만족도 간 상관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로 분석하였다
- 5) 대상자의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진입(Enter)방식 다중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 참여한 대상자는 총 394명으로 연령은, 21세 이하가 161명(40.9%)으로 가장 많았고, 24세 이상이 118명(29.9%), 22세가 87명(22.1%), 23세가 28명(7.1%)의 순이었으며, 평균 연령은 23.79세였다. 성별은 여학생이 323명(82.0%)으로, 남학생 71명(18.0%)보다 많았다. 학년은 4학년이 255명(64.7%)으로, 3학년 139명(35.3%)보다 많았다. 성적은 '중'이 255명(64.7%)으로 가장 많았으며, '상'이 80명(20.3%), '하'가 59명(12.0%)의 순이었다. 입학 동기는 '취직이 잘 되어서'가 214명(54.3%)으로 가장 많았고, '흥미와 적성이 맞아서' 115명(29.2%), '주위의 권유'로 59명(15.0%), '성적이 맞아서' 6명(1.5%)의 순이었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participants (N=394)

Variable	category	n(%)
Age	<21	161(40.9)
	22	87(22.1)
	23	28(7.1)
	>24	118(29.9)
	M±SD	23.79±1.78
Gender	Male	71(18.0)
	Female	323(82.0)

Year	Year3	139(35.3)
	Year4	255(64.7)
Grade	<2.9(Low)	59(12.0)
	3.0~3.9(Med)	255(64.7)
	>3.9(High)	80(20.3)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214(54.3)
	Aptitude	115(29.2)
	Correspond to score	6(1.5)
	Recommendation of family	59(15.0)

3.2 일반적 특성에 따른 통합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학과만족도의 차이

통합성의 평균은 4.67±0.74점(범위1~7점), 임상실습 스트레스의 평균은 3.42±0.55점(범위1~5점), 통합성의 평균은 3.51±0.47점(범위1~5점)이었다. 통합성은 일반적 특성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성별과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는 학년과 성적, 입학 동기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성별에서 여학생이 3.47±0.59점, 남학생이 3.18±0.59점으로 유의한 차이를($t = .941, p < .01$)보여, 여학생이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학년에는 4학년이 3.53±0.49점으로, 3학년 3.20±0.72점보다 높다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t = 8.31, p < .01$), 학년이 높을수록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높다고 나왔고, 학과만족도는 4학년이 3.56±0.45점으로, 3학년 3.40±0.51점보다 높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t = 4.50, p = .001$), 학년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적에서는 '상' 3.58±0.43 점, '중' 3.52±0.49점, '하' 3.31±0.44점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F = 6.35, p = .002$), 성적이 좋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고 나왔다. 또한 입학 동기에서 '적성이 맞아서'가 3.66±0.4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취직이 잘 되어서'가 3.45±0.43점, '주위의 권유'로 3.45±0.53점이었고, '성적이 맞아서'가 3.28±0.85점으로 가장 낮아,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F = 5.11, p = .001$), 성적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Table 2>.

3.3 통합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학과만족도의 상관관계

통합성은 학과만족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r = .412, p < .01$),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 = -.193, p < .01$). 하지만 임상실

Table 2. Differences of Integr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Department satisfaction by General characteristics (N=394)

Variable	category	Integr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M±SD	t or F (p)	M±SD	t or F (p)	M±SD	t or F (p)
Age	<21	4.67±0.74		3.42±0.55		3.51±0.47	
	22	4.68±0.71	1.84 (.139)	3.34±0.67	1.96 (.118)	3.53±0.45	0.82 (.478)
	23	4.71±0.69		3.54±0.43		3.53±0.45	
	>24	4.87±0.65		3.39±0.55		3.47±0.54	
Gender	Mail	4.55±0.76		3.43±0.60		3.45±0.52	
	Femail	4.61±0.65	0.71 (.552)	3.18±0.59	0.94 (<.001)	3.44±0.49	0.07 (.242)
Year	Year3	4.67±0.74		3.47±0.59		3.52±0.48	
	Year4	4.62±0.65	1.41 (.427)	3.20±0.72	8.31 (<.001)	3.40±0.51	4.50 (.002)
Grade	<2.9(Low) ^a	4.68±0.76		3.53±0.49		3.56±0.45	
	3.0~3.9(Med) ^b	4.50±0.71	2.77 (.064)	3.28±0.60	1.87 (.155)	3.31±0.44	6.35 (.002)
	>3.9(high) ^c	4.66±0.71		3.45±0.59		3.52±0.49	
Motivation of admision	Employment guarantee ^a	4.79±0.76		3.42±0.60		3.58±0.43	a<b<c
	Aptitude ^b	4.61±0.71	1.51 (.196)	3.46±0.59	1.80 (.128)	3.45±0.43	5.11 (<.001)
	Correspond to score ^c	4.80±0.73		3.30±0.64		3.66±0.48	
	Recommendation of family ^d	4.60±0.75		3.37±0.37		3.28±0.85	
		4.57±0.66		3.42±0.55		3.45±0.53	b>a=d>c

습 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즉 통합성은 학과만족도와 임상실습 스트레스에 영향을 미치지만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Table 3. Correlations between Integr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N=394)

	Integration	Clinical practice stress	Department satisfaction
	r(p)		
Integration	1		
Clinical practice stress	-.19(<.001)	1	
Department satisfaction	.41(<.001)	-.01(.799)	1

3.4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서 진입(Enter)방식의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으로 분석하였다. 회귀분석을 위한 독립변수는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학년, 성적, 입학 동기 및 학과만족도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낸 통합성을 영향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학년은 '3학년'을 준거변수로, 성적은 '상'을 준거변수로, 입학 동기는 '취직이

잘 되어서'를 준거변수로 하여 가변수(더미변수)처리 하였다.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독립변수의 다중공선성, 독립성과 정규성, 등분산성을 검정하였다.

다중공선성을 검증한 결과 공차 한계는 0.983~0.437로 0.1 값보다 컸으며, 분산 팽창 인자는 1.077 ~ 2.379로 10을 넘지 않아 독립변수들 사이에 다중공선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차항의 독립성을 검정한 결과 Durbin-Watson은 2.15로 2에 가깝게 나타나 오차 항들 사이에는 자기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화 잔차가 모두 ±2 이내의 값으로 나타나 잔차의 분포를 정규분포로 가정할 수 있었다.

학년, 성적, 입학 동기 및 통합성을 예측변수로 하여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설명하는 선형회귀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F=10.093, p<.001). 회귀모형의 설명력을 나타내는 수정된 결정계수는 adj R² = .20으로 회귀모형은 학과만족도를 총 변화량의 20%를 설명하고 있었다.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변수의 준거 변수에 대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유의수준 .05에서 학과만족도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통합성(β= .406, p<.001)과 입학동기 중 '적성이 맞아서'(β= .166, p= .006)로 나타났다<Table 4>.

Table 4. Prediction of Department satisfaction

(N=394)

Variable		B	SE	β	t	p
constant		2.331	.181		12.914	<.001
Year	Year3					
	Year4	-.341	.246	-.081	-1.38	.167
Grade	<2.9(Low)					
	3.0~3.9(Med)	.042	.086	.042	0.49	.622
	>3.9(high)	.011	.102	.009	0.11	.916
Motivation of admission	Employment guarantee					
	Aptitude	.169	.061	.166	2.76	.006
	Correspond to score	.040	.209	.011	0.19	.848
	Recommendation of family	.063	.086	.043	0.74	.463
Integration		.244	.035	.406	6.96	<.001
adj R ² = .20		F(p)=10.093(<.001)				

4. 논의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통합성, 임상실습스트레스, 학과만족 정도를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함으로써 학과만족도 향상 프로그램과 학생 지도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주요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 학생들의 학과만족도는 평균 3.51점(범위1~5점)으로 나타났다. 동일한 도구로 간호대 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학과만족도를 측정한 Kim 등[21]의 연구에서의 평균 3.76점(범위1~5점)보다 낮았고, 간호대 학생 1~4학년을 대상으로 학과만족도를 측정한 Park 등[22]의 연구에서의 평균 3.72점보다도 낮았다. 이는 본 연구의 대상자가 임상실습과 전공이론 수업을 병행하고 있는 3~4학년이어서 학과만족이 실습 경험 후에 변화할 수 있고, 특히 본 연구 대상자들의 실습에 대한 부담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학과만족도는 4학년의 평균이 3.56점으로, 3학년의 평균 3.40점보다 높았다. 3학년보다 학교생활이 어느 정도 적응한 4학년이 높게 나왔는데, 이러한 결과는 Park[23]의 연구와 일치하였지만, Joo 등[24]의 연구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3학년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선후배간 정보 공유를 위한 비교과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제안한다. 전공학과에 대해 부정적일 경우 간호대 학생이 졸업 후 임상현장에서 전문적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공지식 습득, 올바른 신념과 태도 형성에 장애가 발생하게 되고 이는 자신의 직업에 대한 혼란과 부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25]. 그러므로

학과만족이 낮은 이유를 면밀히 파악하여 간호학 전공에 대한 이해와 만족을 높이고 간호대학생들이 학과 적응력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간호학과의 특성을 반영한 학년별 학과만족도 증진프로그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본 연구의 결과 간호대 학생 임상실습스트레스는 평균 3.42점(범위1~5점)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Yoon[26]연구의 평균 3.41점과 Yang 등[27]연구의 평균 3.45점과는 유사하였으나 Lee[28]연구의 평균 3.17점보다는 높았다, 이는 실습기관의 상황, 표집지역 등에 차이가 있어 단순한 결과만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2020년부터 시작된 COVID-19의 영향으로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임상실습과 교내실습의 병행이 원인으로 사료되며 중재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일반적 특성에 따른 임상실습스트레스는 4학년의 임상실습스트레스가 3.56점으로, 3학년 3.20점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이 결과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한 Whang[7]연구에서 나온 4학년 3.61점, 3학년 3.51점의 결과와 유사하여 임상실습 경험이 많은 4학년이 임상실습 경험이 적은 3학년보다 임상실습 스트레스가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취업과 간호사 국가시험을 앞두고 있는 4학년 학생들이 임상실습에 더 민감하기 때문이라 생각되고, 학년별 실습방법과 일정에 차이를 주어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즉 임상실습스트레스가 학과만족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현재 간호대학생들의 임상실습 교육이 필수과정인 만큼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습득한 이론적인 지식을 실무에 적용하는 실습 교육과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실습지도자의 세심하고 각별한 지도가 요구된다. 또한 교육기관과 현장실습 담당자는 전문

직 간호사를 양성하는데 있어 책임의식을 공유하고 상호 성숙된 이해와 충분한 협의를 통해 실습교육 방향을 구축해나가는 실제적인 공동체 의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셋째, 본 연구에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대한 영향 요인을 규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학과만족도의 전체적 설명력은 20%였으며, 첫 번째 관련요인은 통합성($\beta=.406, p<.001$)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간호대학생의 통합성은 평균 4.67점(범위1~7점)으로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간호대 학생 3학년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의[29] 평균 4.39점과 간호대 학생 2학년 이상을 대상으로 연구한 Lee 등의[30] 평균 4.49점 보다는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자는 임상실습을 경험한 3~4 학년이었기에 차이를 보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간호대 학생들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전문지식습득의 어려움, 국가시험, 취업과 진로에 대한 부담감, 더불어 임상실습스트레스를 받게 되지만[3], 통합성의 개인적 요소인 이해력, 처리능력, 의미부여성 등을 발휘하여 효율적으로 대처[11]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Lee 등[30]의 연구에서 전공만족도가 높을수록 통합성이 높았다는 연구결과와 Lee 등[29]의 연구에서 통합성의 하위 요소인 이해가능성, 처리가능성, 의미부여성이 높을수록 학업스트레스가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통합성이 높을 경우 건강이 증진되는 행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고 이로 인해 자신의 건강상태를 긍정적으로 지각하여 스트레스 등의 부정적 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다[10]. 이러한 맥락에서 통합성은 건강증진행위 과정을 통해 학과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음으로 여겨진다. 그러므로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 향상을 위해서는 통합성 증진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비교과프로그램과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 건강관련 지도를 고려해 볼 수 있겠다.

넷째, 학과만족도에 두 번째 관련요인은 간호학과 입학동기 중 '적성이 맞아서'($\beta=.166, p=.006$)로 나타났다. 이 경우 학과만족도가 3.66 ± 0.48 점으로 가장 높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이것은 Cho 등[21]의 연구에서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적성과 취미가 맞아서' 일 경우, 취업률을 고려해서 선택한 경우와 가족이나 선생님의 권유로 선택한 경우보다 학과만족정도가 높게 나타났던 결과와 유사하다. Ko 등[31]은 자신의 미래와 전공학과에 대한 충분한 고민 없이 입시성적에 맞춰서 전공을 선택한 경우 학과만족도가 낮아진다고 하였으며, Kim 등[32]은 자신이 선택한 학과가 자신의 꿈과 미래의 진로 또는 직업상과 일치한다면 학과만족은 높아진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간호대학생들이 간호학과에 적응하지 못하는 원인을 파악하여 신입생 때부터 적절히 중재하는 것이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33]. 특히 타인의 권유로 간호학과를 선택한 간호대학생들은 학과 적응에 부정적일 수 있으므로 전공에 대한 이해를 위해 전공 탐색 프로그램이나 사제동행 캠프 등을 운영하여 전공 교과과정에서 동기부여가 되도록 하여야만 학과만족도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논의를 통해 통합성이 학과만족도에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입학 선택 동기 또한 학과만족도와 관련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입학 초기부터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상담 등을 통한 교수자의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더불어 간호대학생이 임상실습 경험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위축되지 않고 자신감을 구축하도록 스트레스에 대한 개인적 행동적 대처능력을 증진시키는 중재는 임상실습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유용한 전략이 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통합성과 임상실습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하고 학과만족도와 의 관련성을 규명함으로써 학과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과 학생지도 방안을 개발하는데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간호학적 의의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통합성, 임상실습 스트레스, 학과만족도와 의 관계를 파악하고 이들 변인이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임상실습 경험이 1회 이상인 간호대 학생 3, 4학년을 대상으로 편의 추출하여 총 394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검증에서 임상실습스트레스는 성별($t=.941, p<.01$)과 학년($t=8.31, p<.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는 학년($F=6.35, p=.002$)과 성적($F=6.35, p=.002$), 입학동기($F=5.11, p=.001$)에 따라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합성은 학과만족도에 정적 상관관계를 보이며($r=.412, p<.01$), 임상실습 스트레스와는 부적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193, p<.01$). 즉 통합성이 높을수록 학과만족도가 높았다. 셋째, 간호대학생의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예측요인은 통합성($\beta=.406, p<.001$)과 입학동기 중 '적성이 맞아서'($\beta=.166,$

$p = .006$)로 나타났으며, 학과만족도를 총 변화량의 20%를 설명하고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볼 때, 간호대학생의 통합성과 간호학과 선택 동기가 학과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그 중 통합성이 가장 영향이 컸으므로 간호대 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입학 초기부터 간호대 학생의 통합성 증진프로그램과 함께 학년별 학과만족이나 학과적응을 위한 다양한 정규 및 비정규 교육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J시의 일 간호대학의 3~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편의표집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는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간호대 학생의 학과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통합성 증진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고 평가할 수 있는 후속 연구를 제안한다. 둘째, 간호대 학생의 학과만족도에 미치는 다른 변수들을 확인하는 연구와 이를 검증하는 후속연구를 제안한다.

REFERENCES

- [1] J. H. Lim (2014). Construction of a Structural Model about Nursing Students Academic Motivation, Ego-resilience, and Satisfaction in Major.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16(4), 2273-3284.
- [2] E. Y. Yu & Y. J. Yang (2013). A Study on the Difference among College Students Department Satisfaction and Career Maturity and the Influence on Career Str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2), 557-568. DOI: <http://dx.doi.org/10.14400/JDPM.2013.11.12.557>
- [3] H. J. Park & I. S. Jang (2010). Stress, depression, coping styles and satisfaction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6(1), 14-23. DOI: <https://doi.org/10.5977/jkasne.2010.16.1.014>
- [4] M. H. Cho & I. S. Kwon (2007). A study on the clinical practice experiences on nursing activities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3(2), 143-154.
- [5] K. Y. Yang, J. R. Lee, & B. N. Park (2012). Factors affecting adaptation to school life of freshmen enrolled in nursing at junior colleg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8(1), 5-13.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2.18.1.005>
- [6] J. A. Yee (2004). A study on the image of nurses and the professional self-concept perceived by nursing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Administration*, 10(3), 325-334.
- [7]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8] H. J. Park & J. W. Oh (2014). The relationship of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the major satisfaction with the nursing professionalis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 Digit Converg* 12(0), 417-426. DOI: <https://doi.org/10.14400/JDC.2014.12.12.417>
- [9] K. H. Jeon, S. R. Lim & M. Kim (2016). The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nse of Coherence, Clinical Practice Stress, and Departmental Satisfaction of Dental Hygiene Students. *J Dent Hyg Sc*, 16(5), 323-330. DOI: <https://doi.org/10.17135/jdhs.2016.16.5.323>
- [10] A. Antonovsky (1987). *Unraveling the mystery of health: how people manage stress and stay well*. Jossey-Bass, San Francisco, 272-274.
- [11] K. Gana (2001). Is sense of coherence a mediator between adversity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adults?. *Stress Med*, 17(0), 77-83.
- [12] M. J. Park (2007). The effect of sense of coherence on the depression. *KGS 27(0)*, 39-52.
- [13] H. W. Kwak & S. W. Hwang (2017). A comparative study on interpersonal relationship, self-efficacy,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students majoring in nursing: focus on a four-year technical college and university. *Journal of Convergence*, 15(2), 239-249. DOI: [10.14400/JDC.2017.15.2.239](https://doi.org/10.14400/JDC.2017.15.2.239)
- [14] B. H. Kim & J. H. Shin (2016). The Influence of Major Choice Motivation and Major Satisfaction Degree on Department Adaptation of Mature Learners in the Nurse Dept. of College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7(5), 141-166. DOI: <http://dx.doi.org/10.22143/HSS21.7.5.8>
- [15] J. S. Kim & S. J. Park (2018). Relevance of critical thinking, coping power and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college student.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8(12), 247-256. DOI: <http://dx.doi.org/10.21742/AJMAHS.2018.12.58>
- [16] J. R. Choi & Y. M. Ha (2020). Relationships among Basic Psychological Needs, Self-Esteem, Department Satisfaction, Family Strengths and Career Attitude Maturity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Education & Culture*, 26(2), 307-326. DOI: <https://doi.org/10.24159/joec.2020.26.2.307>
- [17] I. S. Seo (2002). *A study on the sense of coherence and compliance in patients with diabetes mellitus*. Unpublished master's thesis, Catholic University, Seoul.
- [18] S. J. Whang (2006). The relationship between clinical stress, self-efficacy, and self-esteem of nursing college student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2(2), 205-213.
- [19] L. A. Braskamp, S. L. Wise, & D. D. Hengstler (1979). Student Satisfaction as a Measure of Developmental

Quality,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1(0), 494-498.
DOI: <http://dx.doi.org/10.1037/0022-0663.71.4.494>

[20] K. H. Kim & H. S. Ha (2000). A Study of Department Satisfaction Factors of Undergraduate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1(1), 7-20.

[21] J. A. Cho & J. S. Kim (2016). Factors Affecting Nursing College Students Satisfaction with their Department.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4), 587-596.
DOI : 10.5762/KAIS.2016.17.4.587

[22] E. J. Park & G. S. Jeong (2018). The Relationship of Ego-Resilience, Self-Efficacy and Satisfaction of Department on Nursing Students. *Korea Society of Intergration Medicine*, 6(3), 113-121.
DOI: <https://doi.org/10.15268/ksim.2018.6.3.113>

[23] A. S. Park & H. K. Kim (2016),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Choice and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daption of university Lif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7(2), 511-519.
DOI : 10.5762/KAIS.2016.17.2.511

[24] E. K. Joo J. W. Ha (2021). The Effect of Motivation for Major Selection, Satisfaction in Major on the Academic Achievement Among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 12(1), 2563-2578.
DOI : <http://dx.doi.org/10.22143/HSS21.12.1.181>

[25] D. Barron, E. West, & R. Reeves (2007). Tied to the job: affective and relational components of nurse retention. *Journal of Health Services Research & Policy*, 12(1), 46-51.
DOI: <http://dx.doi.org/10.1258/135581907780318419>

[26] J. H. Yoon (2016). Affecting Factors on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Department of Nursing Science The Graduate School, Ajou University.

[27] N. Y. Yang & S. Y. Moon (2011). Relationship of Self-leadership, Stress and Satisfaction in Clinical Practice of Nursing Students. *The Journal of Korean Nursing Administration Academic Society*, 17(2), 216-225.

[28] H. J. Lee. (2016). Convergence Study on Nursing Students' Stress and Satisfaction with Clinical Practice.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7(4), 75-83.
DOI : <https://doi.org/10.15207/JKCS.2016.7.4.075>

[29] M. H. Lee & M. S. Park (2014). Sense of Coherence and Academic Stress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 Contents Society*, 14(12), 863-872.

[30] E. J. Lee & W. H. Jun (2013). Sense of Coherence and Stress of Clinical Practice in Nursing Students.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19(1), 163-171.
DOI: <http://dx.doi.org/10.5977/jkasne.2013.19.2.163>

[31] J. E. Ko, M. H. Kim, E. J. Kim, H. J. Kim, J. E. Eom, H. A. Lee, N. R. Jang, D. E. Jang (2010). The relation between nursing college students major satisfaction and their nursing professionalism. *Journal of the*

Nursing Academic Association of Ewha Womans University, 45(0), 29-44.

[32] D. J. Kim (2013). *Influence of Ego-Resilience and Self-efficacy on Department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33] I. Y. Cho (2014). The Relationship of Career Identity, Major Satisfaction and College Adaptation of Nursing Freshmen.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5), 2937-2945,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5.2937>

백 명 화(Baek-Myung Wha)

[정회원]



- 198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198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2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 관심분야 : 성인간호학
- E-Mail : bmwha@naver.com

이 미 숙(Mi-Suk Lee)

[정회원]



- 198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2012년 2월 : 부산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20년 2월 : 경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박사)
- 현재 : 거제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간호연구
- E-Mail : pr21053@koje.ac.kr

김 지 연(Kim-ji Youn)

[정회원]



- 1996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학사)
- 1999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7년 2월 : 경북대학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현재 : 진주보건대학교 간호학과 조교수

- 관심분야 : 아동간호학
- E-Mail : kjy58173@hanmail.net